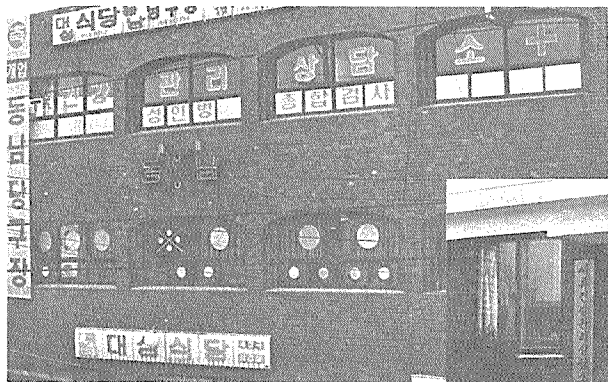


## “성병관리. 건강상담, 저희가 맡겠습니다.”

### 건협 경기지부 건강관리상담소

健協 경기지부는 지난해 2월과 5월에 세류건강관리상담소 및 수원건강관리상담소를 맡아 운영해 왔다. 수원시로 부터의 위탁, 그리고 보사부 보조금으로 설치되어 약 1년간 운영되어 온 두 상담소는 그동안 성병관리사업을 비롯해 주민건강상담, 예방접종 등을 실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설치과정이나 업무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기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내고 있는 두 상담소를 찾아가 봤다.



#### • 세류 보건지소를 위탁·운영

세류건강관리상담소는 원래 수원시에서 운영해오던 보건지소를, 지난해 2월,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주민건강관리를 위해 수원시가 건협경기지부에 위탁 운영하기까지 성병관리, 예방접종 등을 실시해오고 있었다.

『지난해 2월24일, 200여점에 달하는 장비와 함께 저희 지부가 운영토록 위탁되었습니다. 28일 세류건강관리상담소 현판식을 갖

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세류비행장 부근 특수업태부의 성병관리와 성병 및 성인병에 대한 보건교육, 무료 예방접종, 그리고 건강상담 등 기존 보건지소가 하던 일과 함께 일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부 장상철 사업과장의 설명이다.

### • 주민 건강 상담에도 한 몫

현재 세류건강관리상담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1명씩 근무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성병검진 7백여건, DPT.Polio. 간염. 뇌염 등 예방접종 1천4백여건을 실시했습니다. 그외에 주민 건강상담 등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꽤 많이 실시해 왔습니다.』 세류건강관리상담소의 간호사 이범숙씨의 얘기다.

기존의 보건지소를 지난해 2월,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주민건강관리를 위해 수원시가 건협 경기지부에 위탁·운영토록 한 것이 세류 건강관리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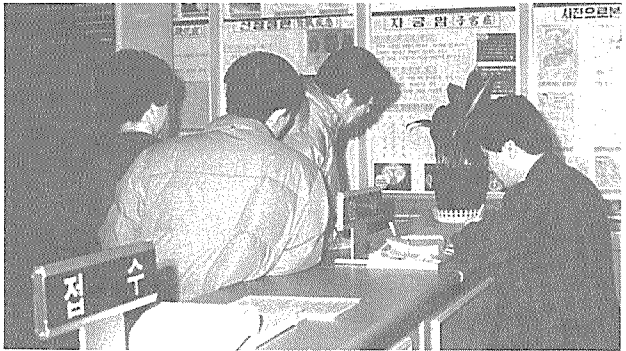


### • 세류 비행장 부근 특수업태부 성병관리

그녀는 처음 이곳을 맡아 운영할 때는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의외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성병관리 역시 주변 특수업태부들을 등록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이 세류상담소에 등록된 특수업태부들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 보건소의 약품 지원을 받아 무료 치료를 받고 있다.

『세류상담소의 위탁 운영의 의의는 주민건강관리의 체계화에 있



두 상담소의 주요 업무는 체계적 성병 관리, 간염 등의 예방접종 및 검사, 건강상담 등이다.

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저희 협회는 아무래도 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장용준 경기도지부 사무국장의 위탁 운영의 의의에 대한 설명이다.

• 수원역 부근 특수업태부 성병관리 위해 건강상담소 설치

이에 비해 수원건강관리상담소(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25-1, 시외버스 터미널 상행선 앞 건물)는 설치 목적이나 운영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수원상담소는 원래, 지난해에 수원역 주변 특수업태부의 성병 검진을 위해 성병간이진료소로 설치되었습니다. 보사부의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졌죠.』 장상철 사업과장의 설치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수원시는 성병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체계적인 성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확실히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원역 부근에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특수업태부의 성병관리를 위해 이 건강관리상담소가 설치되었다.

『이곳에서 하는 일도 특수업태부의 성병관리, 특수업태부 및 인근주민에 대한 건강상담 및 보건계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녀상담소를 활용, 홍보에 주력

그러나 수원건강관리 상담소는 세류상담소에 비해 몇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특수업체부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된 것도, 또 등록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들끼리의 자치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병검사를 해야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健協 경기지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역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녀상담소를 이용해 수원건강관리상담소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그결과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성병검사만 총 1천3백여건을 해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곳에 오면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특수  
업체부들의 인식  
개선이 아쉽다고  
한성온 간호사는  
말한다.

#### • 이동이 심해 지속관리에 어려움 있다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것은, 성병검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주변 특수업체부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탓인지 이곳에 오면 잡혀가거나 장사를 못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워낙 심해서 한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담소를 방문했을 때 마침 상담 전화를 받고 있던, 한 성온 간호사의 설명이다. 그녀는 올바른 보건교육을 통해 그런 인식이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 • 지역 주민 건강 관리에 더 좋은 역할 기대된다

수원상담소에는 의사를 포함해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성병관리 못지 않게 건강상담을 비롯한 간염검사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년동안의 상담소 사업을 평가하며, 앞으로 경기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경기지부의 의지에 찬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두 상담소의 존재는 매우 가치 있어 보였다.